

# 나주문화재단, 음성 상권 활성화 '리빙랩 사업' 본격 운영

### 7월 30일까지 모집...주 1회 실습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룹별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주민과 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사업'을 통해 나주음성 상권의 문제를 진단하고 실행 중심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상권 활성화 모델 구축에 나섰다.

재단은 '음성 상권 관광 리빙랩 사업'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주음성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나주시가 주최하고 재단이 주관하며 나주시상가 번영회가 운영을 맡는다. 특히 상인과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 상권 현안을 직접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실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상권 특성화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30일까지 나주시소상공인회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0회차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초기 5회차에서는 참여자의 관심사와 업종 특성을 반영해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가와 함께 나주음성 상권을 분석해 핵심 의제를 도출한다.

이후 중간 발표회를 통해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실제 실행 단계로 이어지며,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상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향후 나주음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성백 기자

담양군, 어린이날 '담빛청 소년 댄스 페스티벌' 성료

화순, '신나는 꿈의 남산으로' 어린이날 행사 개최

담양군은 최근 제25회 담양대나무축제 및 어린이날을 맞아 축제 주무대에서 개최한 '제4회 담빛청 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가족 단위 관람객 1,500여 명의 뜨거운 호응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오전에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에서는 관내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18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어 어린이날의 의미를 더했으며, 이어 마술 축하 공연과 베베핀 콘서트가 펼쳐져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후에는 전국에서 모인 실력과 청소년 댄스 10개 팀이 참가한 경연대회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치열한 경연 결과 영예의 대상은 '약자지결' 팀이 차지했으며, 10개 팀 모두가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최근 어린이날을 맞아 남산공원 일원에서 '화순어린이 신나는 꿈의 남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화순청년회의소(회장 류용현) 주관으로 열렸으며, 이날 2천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돼 현장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남호경 기자

# 영광군,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 위한 기획조사 추진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획조사를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6년 전라남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조사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기 정보 27종 가운데 1종 이상 해당하는 1,231명이 대상이며, 위기 정보가 다수 해당되는 가구는 방문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전라남도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저·중·고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

하게 연계할 계획이며, AI안부살핌(케어폴) 서비스, 고독사 위험군 생필품꾸러미 전달사업 등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상담을 통해 생활 안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읍면 단위 복지 인력을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발굴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 폭을 넓힐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고독사 예방과 더불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진기 기자

# "전자담배도 안돼요" 장성군,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

###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240곳 확인... 금연 환경 조성 앞장

장성군이 이달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240곳을 대상으로 한다.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와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점검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장성군은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및 시·군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해 금연구역 관리·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오는 14일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금연 지도와 유해환경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금연구역 집중 점검을 통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사진

/장성군 제공

될 경우 현장 계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위해 홍보 활동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금

연 캠페인을 확대해 청소년 흡연 예방에도 힘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계기로 금연 문화 확산과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

/김재섭 기자

**황토깻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